

말라기 1 장

1. 부부는 이렇게 싸운다.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해준 건 뭔데?' 누가 틀린 말을 하고 있을까? 누가 틀렸다고보다는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온갖 사랑을 다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한다. 하나님은 속이 확 뒤집힐 판이지만 참고 대답하신다. 간단하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야곱(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라) 성전을 재건하고 수십 년이 흘렀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사 49:8-26, 학 2:6-9) 기대했건만 고달프기만 하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있었다. 누구 탓이지? 사랑이 적은 하나님 탓인가? 눈앞의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좀 길게 보라고 하신다. 눈앞의 힘든 현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바라볼 눈이 있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좀 화끈하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될까?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왕을 세우고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잘 섬길 텐데!

아마 그래도 마찬가지일 것: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해 보면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이상 뭔가를 채워줘서 행복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하박국의 처지보다 못해서 그랬을까?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외양간의 소를 채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식의 물량공세로 사랑받고 싶은 분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다(신 8:11-14, 사 7:2).

3. 하나님께서 예서를 왜 미워하셨지?

야곱을 선택했을 뿐이다: 둘 다 택하시지 않고? 나아가 모든 인생을 다 택하시지 않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지 모른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도저히 그냥 용서는 안 된다. 그런 와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것도 엄청난 양보일 수 있다. 예서는 그냥 두었을 뿐이다(=유기). 그 결과가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에돔처럼 멸망하는 것은 본전이다. 야곱처럼 선택된 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왜 예서는 버리셨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이시다.

4.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항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예서를 버리셨으니 에돔인들 반항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에돔이 뭘 잘못했느냐고 굳이 따지면 야곱이 선택되었음을 알지 못하듯 예서는 버림받았음을 알지 못했다. 에돔 쪽속은 자기들 욕심이나 생각에 따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에돔이 악해진 것이 아니다.'

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는 것이 왜 그리 큰 감격인가?

고대의 신들은 일정한 영역이 있었다. 일종의 지역신이며 특정 분야의 신이다.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발견하고 놀라곤 했다(야곱, 요나). 그런 점에서 보면 온 세상(이스라엘 지경 밖)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6.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더니? 그렇게 책망했더니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6, 7)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단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의 상은 경홀히 여길 것이라'는 것이다(7). '총독은 눈에 보이고 기분 나쁘게 하면 당장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당장에 무슨 날벼락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아무러면 언제?' 하는 식이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고급스러운 통치에 저급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을 했지만 마음은 전혀 드리지 않았다. 2:9까지 제사장의 타락(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책망이다.

7.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레 25:17, 신 10:12).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공경할 敬, 두려워할 畏)인가?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주인처럼 두려워함으로(6)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1번). 연인처럼, 아니, 요즈음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구처럼 여기듯이!

8. 일종의 대질신문이다(7-8).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다고 하고 제사장들은 그런 적이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더러운 맥(7, 레 3:11, 16의 '식물') 논문 희생(저는 것, 병든 것도, 8)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눈 먼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면 곁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납하겠느냐, 받겠느냐'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얼굴을 들어주시겠느냐?' 이다.

추가로, '여호와와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속으로 그랬잖아(12)?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져야 하다니...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합부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일방적인 경우도 있다.

9. '제발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너희들과 관계는 끊고 다른 자식을 보겠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달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는 말씀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난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자식인가 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마음이, 훗날,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 일단은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10.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10)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요 4:2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제물을 드리는냐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찬미의 제사(히 13:15), 선을 행하는 제사(히 13:16, 미 6:8, 빌 4:18)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11.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보니 말을 함부로 한다.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될 말이 무엇인가?

이 일이 얼마나 번쩍스러운고?: 번쩍(번거로운 폐단)스럽다는 말은 귀찮다는 말이다.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텐데... '결에 두고 심부름이나 하게 해 주세요' 조그마한 권력을 지닌 사람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라고? 하물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12. 12절과 13절이 어느 구절의 반복인가?

12절은 7절의 반복이고, 13절은 8절의 반복이다.

13. '이왕에 더러워진 건데, 먹지도 않을 건데 아무렴 어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12).

14.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가?

눈먼 것(8), 저는 것, 병든 것(8, 12), 토색한 것(13): 이런 것들은 전부 흠 있는 것(14)이다. 바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14). 하나님이 큰 임금이심을 모르는 탓이다. 그래서 그 분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다. 정말 죽으려고 용을 쓴다!

15.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여기에 어떤 단어를 추가시키면 이해하기 좋을까?

수컷 앞에 '좋은(흠없는)'

16.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됴이니라'고 자랑하실 필요가 있을까?

자랑이 아니다. '너 한 번 죽어볼래' 라는 뜻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야단치면서 하는 이 말은 무서운 경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짜운드야' 하시던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셨다. 그 앞에 불려오면 거짓말이나 변명할 생각도 않는다. 짜운드는 야구 방망이의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라기 2 장

1. 제사장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마음이 문제다(2) 마음이 떠나버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도 마음이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물, 제사, 헌신... 다 역겨운 것이다.
2.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는 말은 '씨를 부패시킬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후손을 벌할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벌하는 것과 절기의 희생의 동이 등장하는 이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버려짐: 씨가 부패되면 양식이 끊어지고 후손을 벌하면 대가 끊어진다. 결과는 같아진다. 절기의 희생의 동은 성전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다(3). 결국은 버리겠다는 뜻이다.
3. 이렇게 경고(1:1)의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을 세우려함(4)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셨다.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회복이 본심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란다.
4. 레위와 세운 언약을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잘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
살고, 평강을 누리다(5) 레위와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래 오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주신 언약이다(참고, 신 4:40, 11:21).
5. 레위와 세운 언약의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이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인가?
레위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신 33:8-11, 민 3:45).
6. 왜 레위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가?
레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므로(2:56-6) 출 32:25-29, 민 25:10-13에 보이는 레위인의 헌신을 가리킨다.
7.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닌가? 제사장이 왜 지식을 지켜야 하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레 10:11, 신 17:9-11, 33:10)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지식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다. 더구나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내고 있는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요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제사장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8.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른 경우도 그리 흔하지 않다(학 1:13, 대하 36:16, 사 44:26). 하물며 제사장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 구절이 유일한 경우일 것이다. 제사장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 선지자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사장은 이미 주어진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가르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무시했으니 언약을 파한 셈이다(8).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 열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9).
9. 제사장들을 책망하던(1:6-2:9) 선지자가 이제는 백성들을 책망한다(2:10-3:15).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 모두가 한 형제이기 때문, =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짓이기 때문): '아버지 없는 자식이야 제 멋대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었겠느냐'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형제에게 궤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괴로우하시지(17) 않느냐?는 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10. 제사장들이 파기한 것은 레위의 언약(8, =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다. 백성들이 파기한 것은 무슨 언약인가?
열조의 언약: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을 가리킨다(출 20:2) 그러므로 열조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11.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성소, 혹은 신앙적 순수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까(10)?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곧 우상숭배다: 이것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주된 이유다. 훗날 솔로몬의 비극적인 삶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아들이 원수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부모가 얼마나 참담할까?
12. '깨는 자'는 '눈을 뜨는 자'란 뜻이고(not to break), 응답하는 자란 '보는 자'란 뜻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가령, 주인과 종) 접어두고 이 둘을 합치면 무엇이 될까?
모든 백성(누구든지)!
13. 여호와의 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렸다(13) 누가 이렇게 울었을까?
이혼당한 어려서 취한 아내(14, 16): 아마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느라고 이혼(16)해버린 여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버젓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안 받겠더니까 '왜 그러시냐'고? 에라, 이...!

14. 어려서 취한 아내? 누가 어렵다는 말일까? 혹시 잘못된 만남일지도 모르잖아?

둘 다 어렵겠지, 자신들의 뜻보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일 것이다. 성인이 되고 보니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잘못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15. 합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증거하셨기 때문(=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기 때문): 결혼이 단순하게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유일한 제도이다. 합부로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6. '여호와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란 말은 '여호와와는 영이 남아 있을지라도'라는 뜻이다. 여호와와는 영이 여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즉, 능력이 충분하신 데도 한 여자만 만드시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한 명만 만드신 것이 능력이 모자란 탓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여자, 저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전한 성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온전한 신앙도 온전한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결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혼과 학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학대로 (자기) 옷(=아내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을 덮는다는 말이니 사랑으로 덮어야 할 아내를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못된 인간들은 말도 참으로 못되게 하지만 그것을 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놈이 '하나님이 너보다는 이런 나를 훨씬 더 좋아하실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말라기 3 장

1. 1절의 사자는 두 분인가, 한 분인가?

두 분: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너희의 구하는 주,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돔, 즉 통치자란 뜻)다. 그 분이 전(殿)에 이른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분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길나장인 셈이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에 관한 부분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 마 11:10, 막 1:2, 눅 7:27에 각각 인용되었다. 말 4:5, 눅 1:76, 사 40:3도 직접 관련이 있다.

2. 1-2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가, 재림을 말하는가?

둘 다: 2절의 내용과 1절의 '홀연히'는 분명히 재림을 가리키지만, 그 분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온다는 것은 초림을 가리킨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 다 미래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선 우리는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만 초림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두 장의 그림이 한 화면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3.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섬습하게 하더니 구하는 바가 있었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사모했을까?

메시아, 혹은 구원자가 임하시길 기다린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1:2, 6, 7, 2:14, 17, 3:8, 13).

4.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분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정결케 하는 날이기도 하고(2-3)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다(5) 이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누가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정결케 되든지, 심판을 받든지!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4).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다(을 2:11, 암 5:20, 습 1:14-16). 요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날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했지만(을 2:12-17) 말라기는 그 날 이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3:1, 4:5).

5.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4) 레위 자손의 의로운 제물(3)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가리킨다(요 4:24, 롬 12:1).

6. 연단하는 자는 불로 녹이고 두들겨서 쇠를 연단한다. 깨끗하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뜻인데 그렇다면 표백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오늘날의 방식과 좀 다를 텐데...

젖물에 담궈서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 표백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젖발다'이다. 우리말이나 세탁업자로 번역된 영어성경은 이런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 찌기나 때는 이렇게 해서 버려지고 쇠나 옷은 정결케 된다.

7.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행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일까(5)?

'하나님 섬기는 일 따로, 이웃 섬기는 일 따로' 일 수 없다(마 25:40, 45, 10:42): 하나님을 향한 제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것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이웃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8. ROTC 후보생들이 군기가 바짝 든 상태에서 교관이 한 후보생에게 질문을 했다. 하필 그 학생은 말을 더듬는 학생이었다. 더듬거리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가 변해버렸다. 그 이후 엄한 분위기에서는 그 학생에게 절대로 질문하지 않았단다. 앞에서 선지자는 신랄하게 책망을 하더니(1-2장) 여기서도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5) 그러다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텐데 어느 말이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6)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는 것은 연단과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심은 연단이다. 소멸이 목적이 아니다. 사랑을 감추고 매를 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9.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 '아이구, 이 답답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것이다. 학개와 스가랴에게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반해서 말라기는 예배에 관심이 더 있었기에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10. 흔히 말라기는 십일조를 강조한 책이라고 한다. 십일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이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십일조부터 해야 하는가?

강조하는 것은 십일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악한 짓을 해대니 답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가장 쉬운 예를 든 것이 십일조다. 그것은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초보적인 것이다. 그것이라도 지켜보라는 것이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엄밀히 따져서 말라기는 십일조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 선지자가 행한 많은 말씀 중에서 극히 적은 일부만 떼어내어 강조하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 차라리 이혼을 금지하는 명령이 더 강력해 보인다.

11.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8, 13):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1:2, 6, 7, 2:14, 17, 3:8, 13)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상습적으로 욕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방금 욕을 했다고 지적을 받아도 '언제 욕을 했느냐?'고 대든다.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였다.

12.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하나(10-12)?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말에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은 철부지 신앙인으로 되돌아가는 일종의 퇴행현상이다. 내 인생 전부를 드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과 복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것은 드러야 한다는 마음은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13. 하나님의 창고에도 양식이 있어야 하는가(10)?

레위인들을 위한 창고를 가리키는 것: 백성들이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드러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만약 그 창고가 빈다면? 굶어죽어야지! 안 죽고 도망간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느 13:10에 있다.

14.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악한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 섬겨봐야 헛일이다(14-15):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교만을 드러내는 자를 복되다고? 이스라엘이 그랬단다. 거짓말을 해야 돈이 되지! 이게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는 말의 의미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으로 완악한 말이다.

15.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 선생님이야 무슨 말을 하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서무과장이야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도 결론은 돈 얘기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특별한 소유, 아들로 삼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길고 긴 인간 창조의 얘기(창조, 타락, 추방, 구속)는 이렇게 결말이 날 것이다.

16.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다(16:4:6). 시기적으로 언제적 상황을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16-18)?

중말: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들으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아들로 삼을 것,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심.

말라기 4 장

1.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때에 인류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뉠 것이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기도 하셨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풀무불의 소개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사람도 용광로에 떨어지면 문자 그대로 흔적도 없다. 하물며 초개야! 반면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힘이 넘친다. 고삐 풀린 망아지나 다름없다. 칠랑팔랑 뛰어다니며 외칠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3차 세계대전이 오든, 유성이 충돌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도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종말 속에서도 송아지처럼 뛰놀면 된다.

2. 종말의 풀무불이 얼마나 극렬한지 산불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른가?

산불이 나도 뿌리까지 타는 법은 없다. 온 산을 시뻘겋게 뒤덮은 산불이라도 뿌리와 굵은 가지는 남는 법이다. 심지어 흙 속에는 새생명의 씨앗이 남아있다. 그런데 종말의 불은 뿌리까지 다 태운다. 악은 완벽하게 소멸될 것이다.

3.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멋진 표현이지만 의역이다. 직역을 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날개 아래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다(출 19:4, 신 32:11, 룻 2:12, 3:9의 '옷자락', 시 91:4)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운이 펄펄 넘친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데?

환자처럼 드러누워 있는 존재: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힘없는 환자일 뿐이다. 저주 아래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이다.

4. 악인을 꼭 밟아야 하나(3)?

의롭게 살려는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책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악이 저질러지고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들을 위로하려는 말씀이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지만 종말의 날에는 역전될 것이라는 위로다.

5. 선지자는 말을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한다. 설교를 마칠 때 흔히 쓰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3절 다음, 4절 앞에: 대 여섯 편의 연결된 짧은 설교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 셈이다.

6. 왜 갑자기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시지?

복습(요약)인 셈: 선지자가 말을 마치면서 핵심을 정리하는 셈이다. 제사장에 대한 책망(1:6-2:9)과 백성들에 대한 책망(2:10-3:15)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모든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다.

7. 엘리야는 왜 보내시는가? 차라리 메시아를 보내시지?

복습의 두 번째 핵심인 셈: 이미 메시아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3:1) 그것에 대한 정돈이다. 그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과 동일한 약속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8. 아비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실 엘리야의 중요한 사명이다(6, 눅 1:16). 아니, 그 일을 위해서 보내는 사자를 왜 엘리야라고 할까? 엘리야가 행한 사역의 어떤 점과 닮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이 말살 단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금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겨우 100명이 숨어있는데(왕상 18:4) 활동 중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다(왕상 18:19).

9.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엘리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사람(율법과 선지자)이 아니라 메시아다. 말라기의 이런 메시지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변화산 상에서 세 분이 함께 모이는 모습으로(마 17:3, 막 9:4, 눅 9:30): 결국은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고 한다(마 17:8).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10. 구약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돌이키지 않으면 칠까 하노라?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5): 메시아의 등장을 말하는 신약성경 앞부분과 잘 이어지는 점이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약속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